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준) 號外

발행인 : 엄경철 발행일 : 2009년 12월 31일(목)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준)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 국민의 방송 KBS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지금 KBS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공공적인 프로그램의 폐지와 대통령 라디오 주례방송의 일방적 편성, 그리고 정관용, 윤도현, 김제동 등 비판적 방송인의 퇴출에서 보듯 방송의 공공성이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적인 KBS 장악에 대해 책임을 저야합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은 간부진에 의해 방송되지 못하거나 묵살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일방적 홍보방송은 제작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미 많은 KBS 시사 프로그램이 강제로 폐지 당했으며, 뉴스 또한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은 삭제된 채 전파를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판적인 방송인, 지식인 또한 출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가 공영방송 KBS에서 버젓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KBS 내부는 마치 80년대 군부독재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분위기가 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KBS장악을 위해 야당측 이사를 불법적으로 해임한 뒤, 정부 여당측 이사만으로 정연주 전 KBS사장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이미 최근의 잇따른 법원 판결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불법적으로 해임됐던 신태섭 이사는 이미 법원에서 부당해임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정연주 전 사장의 소송 또한 1심에서 해임이 부당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과정은 그 자체가 이미 불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 김인규 사장은 이명박 후보의 방송 특별보좌단장 출신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통하면서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KBS사장을 갈아치우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KBS를 정권 홍보 기구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KBS 뉴스와 프로그램의 공공성 위기는 바로 이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KBS 사장으로 임명된 김인규씨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방송 특별보좌단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입

니다. 뼈 속 깊이 MB맨임을 온 몸으로 자랑했던 선거 운동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정파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인사를 KBS 사장으로 앉힐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저희 KBS 직원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김인규 사장은 방송 공영성을 지키려고 하는 PD와 기자들 그리고 직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도국의 탐사보도를 전담하던 팀이 해체되는가 하면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들의 후배를 더 이상 뽑지 않는 인사시스템을 도입하려고도 합니다.

또한 보도국의 데스크 검열 기능과 프로그램 편성권을 활용해 비판적인 보도, 비판적인 프로그램의 제작을 완전히 원천봉쇄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부에서 싸우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김인규 사장에 의한 KBS 관제화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입니다.

### 저희는 특보사장을 반대하고 공영방송 KBS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언론노조 KBS본부(준)는 기존 KBS노조와는 달리 공영방송 KBS를 시

민, 시청자들과 함께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진 노조입니다. KBS가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음에도 기존 노조는 사실 제대로 투쟁하지 못한 채, 시민들로부터 '복지노조', '좌시만 하는 노조'란 비판을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준)는 이러한 기존 노조의 단일한 대응을 비판하며 PD와 기자가 주축이 돼 KBS내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자 하는 전 직종의 양심적인 직원들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내부에서 이렇게나마 싸우지 않는다면 KBS의 최소한의 공익성도, 신뢰도 1위의 공정방송도 지킬 수 없을지 모른다는 절박함이 우리들을 뭉치게 했습니다.

### 건강한 시민과 시청자들의 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일 수 없었습니다

현재 KBS 경영진은 저희 노조의 존재 자체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발령 협박으로 노조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측과 권력집단의 노조를 파괴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충분히 예상되고, 또 각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들과 시청자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견제와 감시, 비판과 참여가 저희 새 노조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질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시민,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노조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언론노조 KBS본부(준)는 앞장서서 KBS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공영방송 KBS가 관제방송, 정권방송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 용기라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들 뒤에 수백, 수천만의 시민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론노조 KBS본부(준)는 시민, 시청자 여러분과 손잡고, 국민의 방송 KBS를 가장 앞장서서 지키는 파수꾼이 감히 되고자 합니다.



## 2009 방송 진혹사

KBS PD협회 <편성/제작환경 모니터단>이 뽑은  
KBS 편성, 제작부문 10대 뉴스

지난 1년간 KBS PD들은 밖에 얼굴 들고 다니기가 힘든 한해였습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제작 PD들에게 2009년은 암흑과 같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KBS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PD협회 편성/제작 환경 모니터단이 편성/제작부문 10대 뉴스를 간추렸습니다.<편집자주>



### 1. MB 주례연설, KBS에 'MB방송' 딱지를 붙이다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이 시작된 이래 사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곳곳이 이 방송을 지켜오고 있다. 지난 4월 공방위에서 사측은 가을 개편 때까지 현행 일방통행식 포맷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으나 역시나 이 약속도 깡그리 무시했다.



### 2. 빈소 아닌 황소 옆으로 쫓겨난 노무현 前 대통령 추모 방송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사측은 쏟아지는 국민들의 분노를 우롱하는 듯한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서거 당일 오락프로그램 방송을 강행하는가 하면 추모방송을 준비하던 KBS스페셜의 방송을 막고 심지어는 관련 내용을 준비하던 '추적60분' 방송 사흘 전에 '추적60분' 타이틀을 없애고 추모특집방송으로 바꿔보려는 시도까지 했다.

### 3. 한나라당의 꿈이 이루어지다 <시사투나잇> ... <시사360> ... 폐지

지난해 <시사투나잇>이 폐지되면서 생겨난 <시사360>이 1년여 만인 10월 15일 결국 폐지됐다.

### 4. 개편은 사장 입맛대로... 파행을 거듭한 '물지마 편성'

<TV책을 말하다>, <역사스페셜>, <걸어서 세계속으로> 등은 일언반구 없이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심야시간대로 시간을 옮겼다가 비난이 일자 슬그머니 부활하기도 했다.

### 5. 무차별적 제작비 삭감, 협찬만이 살길?

이병순 사장은 연임을 위해 흑자를 내는데 올인했다. 그 과정에서 무지마한 제작비 삭감이 이뤄졌는데, 외부협찬을 받으면 절반은 남기라는 식의 비상식적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 MB방송 딱지 붙이고... MC 자르고... 시사프로 입 틀어막고...

### 6. 대전충국에서 벌어진 미스터리 사건

4월 15일 대전충국에서 이 지역 건설사를 낚 뜨겁게 미화한 프로그램이 방송돼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해당업체의 회장은 뇌물수수사건 등으로 대전충국의 고발프로그램에서 4차례나 다뤄졌던 인물로, 지인인 편성제작국장이 방송을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7. 거세된 PD 저널리즘, 비판기능 상실한 시사프로그램

'심야토론', 'KBS스페셜', '추적60분' 등의 시사프로그램들은 쟁점을 회피하며 안전지대로 도피하는 경향이 가속화됐다. 그 와중에 소리만 요란한 일자리 창출, 친기업 대한민국 만들기 류의 캠페인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 8. 입바른 소리하는 진행자들을 모조리 거세하라?

지난해 가을개편 이후 시사평론가 정관용, 유창선, 가수 윤도현 씨 등이 라디오와 TV에서 출몰이 퇴출된 데 이어 10월 17일 김제동 씨가 '스타골드벨'의 마이크를 놓게 됐다.

### 9. '수상한' 드라마... 드라마까지 정권홍보에 동원하나?

최근 KBS 드라마 <수상한 3형제>의 "폭력시위대에 맞선, 정당한 경찰진압" 옹호 장면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제 드라마마저 '정권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고 볼 일이다.



### 10. KBS는 'MB방송'에서 김인규 '사영방송'으로 진화중?

김인규씨의 'KBS 사영방송 만들기'가 점점 점입가경이다. 자신이 주인공인 연탄 나르기 행사를 메인뉴스에 내보내는 등 KBS를 마치 개인 홍보방송처럼 이용하고 있다. 특보사장 자신이 맹활약하던 5공 맹전 시절의 방송으로 KBS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 2009 KBS 뉴스 1년을 평가한다 KBS 기자협회 뉴스모니터단, 2009 KBS 뉴스 종합 모니터 보고서

KBS 기자협회 뉴스모니터단이 2009년 한해동안 KBS 뉴스의 종합 모니터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KBS 기자협회를 통해 발표한 2009년 KBS 뉴스 모니터 보고서는 공정성 1위, 신뢰도 1위의 KBS뉴스가 지난 한 해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추락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자, 겉으로 공정·공익을 표방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정권홍보에 기여했는지를 밝힌, KBS기자들의 뼈아픈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그 요약본을 실습니다. <편집자주>

# 특종 죽이고, MB 띄우고...저널리즘이 길을 잃다

### 1 '재앙의 출발점' 용산참사 보도

참사 당일인 1월 20일부터 20여 일 동안 KBS는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진압 과정의 문제점에 눈감았고, 전국철거민연합을 사태의 원흉이자 폭력집단으로 줄기차게 매도했다.

### 2 공영방송 직무 유기한 미디어법 보도

미디어법은 통과될 경우 방송계의 판도를 크게 뒤바꾸고 국민의 시청 패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미디어법을 다룬 KBS 리포트 28건 가운데 미디어법의 내용과 쟁점을 다룬 것은 고작 5꼭지, 그나마 비판적으로 접근한 리포트는 2꼭지뿐이었다.

### 3 '낮 뜨거운' MB어천가



시사기획 씬이 지난 2월 24일 방송한 <대통령 취임 1년 - 남은 4년의 길>은 2009년 내내 보는 이의 낮을 뜨겁게 만든 수많은 MB어천가 중에서도 가히 결정판이었다.

### 4 '매 맞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

민심(民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뉴스... 근 10년 만에

경쟁사인 MBC에 시청률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졌고, 눈물과 오열로 뒤범벅이 된 추모 현장을 촬영한 화면을 최대한 길러낸 무미건조한 보도로 국민의 따가운 비판과 원성을 샀다.

### 5 묻혀버린 천성관 특종, 고개 숙인 KBS

KBS 법조팀이 특종을 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송이 나가지 않아 파문이 일었다. 법조팀은 7월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와 관련된 의혹을 입증하는 기사를 취재, 작성했지만 기사는 승인이 나지 않았고, 해당 아이템은 큐시트에서 빠져 방송이 무산됐다.

### 6 실종된 인권 뉴스, 외면 받는 인사검증

9월 13일 탐사보도팀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회장을 지낸 학회 학술지 논문 투고 규정을 어긴 사실, 그리고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연구보고서 정부 저작권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단독 발굴 취재해 제작한 리포트는 석출짜리 단신으로 방송되는 데 그쳤다.

### 7 '눈물 어린 충정' 방통위 기사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청와대 행정관이 IPTV와 관련해 이동통신사를 불러 기금 250억 원을 출연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였다. 관련 리포트는 미디어법 후속 조치를 거론한 뒤에야 압력 논란을 언급했다. 의혹도 논란도 희석돼 버렸다.

### 8 안 하느니만 못한 4대강 연속기획



지난 9월 4대강 연속기획이 다섯 편에 걸쳐 방송됐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후 4대 강 문제는 줄곧 비판적인 내용의 뉴스를 누락시키는 압력으로 얼룩졌다.

### 9 '성역'이 돼버린 세종시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포함한 세종시 문제에 대해 KBS는 단 한 번도 진지한 비판이나 검증을 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국정 운영의 충실한 협력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 10 본질 외면한 집회·파업 보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범죄가 아닌데도, '도심집회 불허'를 선언하며 집회를 예비 범죄로 만들어 버리고 집회 참가자를 예비 범죄자를 만들어버리는 국가 권력의 횡포를 영무새처럼 되뇌는 것이 언론사의 임장이 될 수는 없음은 명확하다.